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가을 아침을 살아서 맞는 일은 기적이다. 가을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질서를 세우며 강한 고요를 안쪽에서부터 확장해 간다.

가을은 외롭고 슬픈 영혼들의 합주로 완성된다. 달이 가을밤의 지휘자라면, 물은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처음의 음역대를 맡고 밤의 정적을 깨며 우는 풀벌레들은 높은 소프라노 파트를 맡는다.

종교칼럼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아주 오랜만에 눈부신 아침 햇살이 창을 가득 채운다. 이런 날이 얼마 만인지 기억도 제대로 나질 않는다.

눈부신 햇살을 핑계 삼아, 시름시름 몸살을 앓고 있는 이 가을에 케케묵어 먼지 풀풀 날리는 사랑들을 하나둘 꺼낸다.

사랑은 요구르트 같은 것이다. 순수한 사랑은 플레인 요구르트와 같다. 실제 플레인 요구르트만 먹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다.

기고



조귀임 전 초등학교 교사

천년 김삿눈 야생화와다 강아지풀, 이름 모를 들꽃들이 곳곳에 피어 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청아한 물소리, 이 가지 저 가지 넘나들며 목청껏 노래하는 까치 한 쌍의 재잘거림이 정겹다.

봄부터 여름까지 온 들녘을 수놓는 큰금계국이 섰노란 꽃물결을 이루고 있다. 나는 길음겉기가 빨라져 그 앞에서 반갑게 인사한다.

가을에 살아 있음을 기뻐하라

우리는 단 하나의 삶을 살지만 동시에 하나의 삶에서 변주된 여러 삶을 산다. 여럿의 삶을 살다 보니 여러 자아가 필요하다. 내 자아의 가장 밑바닥에는 시골 사람이 산다.

이제 나는 규격화되고 목격 지향적인 삶을 지향하는 도시 사람이다. 나는 했다. 도시 사람은 도덕적 완성이나 영혼의 점진적 성장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늘 시끄러운 도시에 산다. 나는 눈 먼 자들의 시장에서 거울을 팔며 냉혈한처럼 복잡한 계산을 처리한다.

가을이 열매들을 데리고 돌아온다는 것은 기본 일이다. 만물은 만물로서 무르익고, 슬픈 것들은 슬픈 것대로 제 영혼을 정돈한다.

생명의 불꽃을 소진한 것들에게 가을은 제자리를 찾아 준다. 열매들은 제 무게를 못 이겨 땅에 떨어지고, 이 생이 처음이라고 울던 풀벌레들은 돌연 죽음을 맞는다.

감정 분명히 전에도 느낀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당시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떠올린다.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만날처에서 물끄러미 바라본다.

옛사랑의 기억

늘어서 먹으면 훨씬 맛있다. 요구르트는 여러 가지를 넣어서 먹는 게 일반적이다. 사랑도 비슷하다. 순수한 사랑을 굳이 말로 하려면 조건 없는 자비심쯤 될 것이다.

그까지 사랑 따위에 한 번도 눈이 멀어 보지 않은 이에게 사랑이란 그저 병들어 집착이 되어 버린 정(情)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한번이라도 정에 사무쳐 본 사람이라면 안다.

어떤 경험은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알 수 있다. 즐거운 감정인데 고통스러운 감정인데 상관없이, 인간은 같은 감정을 무수히 반복하여 경험한다.

시민에게 힐링을 주는 광주천

관상용 새인 금계의 벼를 담았다고 해서 금계국이라고 한다. 여름의 시작과 함께 6-8월 동네공원이나 길가 공원에서 피는 여름의 대세 꽃이다.

연일 쏟아진 폭우로 냇물이 불어나 징검다리를 넘어 흙탕물이 세차게 흘러간다. 그 바람에 백로랑 왜가리가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없어 안쓰럽고 찼다.

천년 길은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젊은이들, 어린아이 손 잡고 거니는 엄마 아빠, 강아지를 몰고 다니는 젊은 남녀들, 시원한 다리 밑에 모여서 정담을 나누는 할머니들, 운동하는 사람, 시장 바구니를 끌고가는 사람, 야외 학습 나온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아이들, 쓰레기 줍는 환경단체 직원들, 보수작업하는 사람들로 언제나 북적인다.

기운을 잃은 나비 한 마리가 마루 바닥에서 이리저리 몸을 뒤적이고 있다. 호랑이 눈을 연상케 하는 나비의 날개 무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과거는 아름답고 소중한고 명료하다. 그래서 몇 마디의 말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제 아무리 허접하고 별 볼 일 없고 치사하고 사소할지라도, 모호하고 설명하기 힘들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날씨가 좋다. 뭐라도 해야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에 덜 미안할 것 같아, 아무 글이나 손이 가는 대로 써 보았다.

바리는 사람, 간식과 음료수를 먹고 빈 컵과 빈 용기를 불품삼습게 던져 놓고 간 사람 등등 모두가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다. 반면에 반려견의 배설물을 깔끔히 치우는 깔끔한 길손도 있다.

공원 다리 아래 날찍한 바윗돌에는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들이 항상 앉아 계시는데 내가 다가가서 인사말을 건넌대 어린애마냥 좋아하시면서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시고 “어디 사느냐, 몇 살이냐?” 하고 물으신다.

광주시청과 남구청의 노력으로 천변에 무성히 자란 풀이 제조 작업으로 말끔하게 단장되고 축 늘어져진 나뭇가지도 잘라내어 산뜻하고 청량감이 든다.

천변로가 말끔히 단장되면 걷기가 한결 편할 것이다. 삶의 위안과 힘을 얻는 천변 산책으로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활기차고 경쾌하다.

社說

느는 인구도 감당 못하는 혁신도시 정주 여건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조성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정주 인프라가 인구 증가세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빛가람 혁신도시 인구는 3만 9246명으로, 2030년 계획 인구 4만 9499명의 79.3%를 달성했다.

하지만 정주 여건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지난해 말까지 개원한 병·의원은 모두 36곳으로, 한 곳당 주민 1090명이 이용하는 셈이다.

간간해진 시의회 거수기 넘어 감시자 거듭나길

민선 8기 들어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강한 견제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의 주요 공약 사업 예산을 여론 수렴이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전액 삭감하는 등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의회는 그제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가 요청한 세출 예산 가운데 32억 2500만 원을 삭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주요 공약이었던 학교 정보화사업 예산 302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원격 강의의 수강에 필요한 태블릿PC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생까지 무상 보급하는 것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주요 공약이었던 학교 정보화사업 예산 302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원격 강의의 수강에 필요한 태블릿PC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생까지 무상 보급하는 것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주요 공약이었던 학교 정보화사업 예산 302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원격 강의의 수강에 필요한 태블릿PC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생까지 무상 보급하는 것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주요 공약이었던 학교 정보화사업 예산 302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원격 강의의 수강에 필요한 태블릿PC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생까지 무상 보급하는 것이다.

한일역전

추구를 비롯해 모든 한·일 경기는 서로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국가 간 자존심 대결이다. 침략과 피지배로 인한 불행한 역사가 해결되지 않은 탓에, 한·일 양국의 국민들은 모든 분야에서 대립하고 서로를 비교하며 이겨려 한다.

만 5634호가 조성돼 당초 계획의 87.2%에 이르렀지만 전국 평균(94.8%)을 크게 밑돌고 있다. 각급 학교는 학생들을 감당하지 못해 보건실과 과학실, 미술실 등 특별 교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주 여건 미비는 가족 동반 이주를 꺼리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인원 7999명 가운데 기혼자는 5556명으로, 이 가운데 홀로 이주한 사람이 2322명(41.8%)에 달한다.

정부와 광주시·전남도는 혁신도시에서 주민들이 정착하여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비해 원격 강의의 수강에 필요한 태블릿PC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생까지 무상 보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기기 활용에 대한 분석이나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지방자치회는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간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행정이 자치단체의 몫이라면, 편성 예산 가운데 32억 2500만 원을 삭감한 것은 의회의 몫이다.

가 출범한 광주시의회가 집행부와 ‘허니문’으로 여겨지는 기간에 시장·교육감의 주요 공약 예산을 삭감한 것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 출범한 광주시의회가 집행부와 ‘허니문’으로 여겨지는 기간에 시장·교육감의 주요 공약 예산을 삭감한 것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無等鼓

해도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의 약 두 배였지만 현재는 비슷한 수준이다.

수출액 규모도 역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 1-5월 양국 수출액 격차는 162억 달러로 역대 최저로 좁혀졌는데, 그중 5월 수출액만 놓고 보면 한국이 616억 달러로 일본보다 53억 달러가 많았다.

이미 수년 전부터 한·일의 상황이 역전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최대기업 시가총액 등이며 음악·영화 등 문화 분야에서도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수년 전부터 한·일의 상황이 역전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최대기업 시가총액 등이며 음악·영화 등 문화 분야에서도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수년 전부터 한·일의 상황이 역전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최대기업 시가총액 등이며 음악·영화 등 문화 분야에서도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수년 전부터 한·일의 상황이 역전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최대기업 시가총액 등이며 음악·영화 등 문화 분야에서도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Table with 4 columns: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